| 보 도 자 료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
| 배포 일자 | 2026.11.10.(화) / 총3매 (본문 2, 붙임1) | |
| 자료 제공 | •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86-21-6090-0395)<br>- 김태일 선임연구위원 | |
| 배포 부서 |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 |
| 보도 일시 |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 |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 | |

# 한·중 해운 전문가 한자리에…글로벌 해운물류의 도전과 기회 논의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상하이에서 「제17회 KMI-SISI 국제해운회의」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11월 5일(목)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국제해운연구중심(SISI, 비서장 장제슈)과 공동으로 「제17회 KMI-SISI 국제해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MI-SISI 국제해운회의는 한·중 양국의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로, 2009년부터 양 기관이 공동 개최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한국해운협회와 중국선주협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해운 물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최재하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천휘(陈珲) 중국선주협회 상무부비서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 주다장(朱大章) 상하이해사대학교 당위부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글로벌 해운 이슈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는 장융펑(张永锋) SISI 직속 당지부서기가 '국제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현황 분석과 전망'을 발표하며, 국제 해운시장의 재편과 비용 상승, 돌발 사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주요 변화로 진단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산업연구실 최건우 부연구위원은 '초크포인트 리스크와 해상운송시장 영향'을 주제로 호르무즈 해협과 파나마 운하 사태를 중심으로 탱커시장을 분석하고, 초크포인트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교역량이 증가하더라도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초크포인트의 정상화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김동환 센터장은 ‘글로벌 물류공급망 이슈 및 전망’을 발표하며 항만 터미널의 유연성이 글로벌 공급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샤오페이(邵斐) SISI 선임 시장분석가는 ‘2026년 국제 건화물 선박 운송시장 동향 및 2027년 전망’을 발표하고, 2027년 주요 변수 간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케이프사이즈선의 상대적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중국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제2세션 종합토론에는 한국 측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김찬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과 중국 측 저우더췐(周德全) SISI 해운발전연구소 소장, 양핀중(杨品中) 상해인천국제페리 전무이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해운시장의 불확실성과 공급 과잉, 탄소세 부과 및 선박 디지털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안정적인 해상수송로 확보와 공급망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한·중 양국의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2026년 글로벌 해운 물류는 초크포인트 리스크,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등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한 한 해였다”며 “이번 회의가 양국 전문가들이 내년 해운·항만·물류 시장을 전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중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회의 전날인 11월 4일(수) 주상하이 국적선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국적선사의 최근 상황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중국연구센터 김태일 선임연구위원(86-21-6090-0395, ktizorro@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7회 KMI-SISI 국제해운회의 사진







